

“복합쇼핑몰·GDP 꼰등 도시” 왜곡에 광주가 화났다

〈국내총생산〉

이용섭 시장 “대선 표 얻으려 광주시민 자존심에 상처 준 발언”
복합쇼핑몰 22곳 운영 중... 토론 제안에 “지자체서 할 일을 왜?”

“광주를 GDP(국내총생산) ‘꼰등 도시’로 왜곡하고, (광주시민은) 병풍 등 좋은 물건에 관심을 가지면 투쟁의지가 약화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향후 지역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 말을 최대한 아껴왔던 이용섭 광주시장의 작심한 듯 국민의힘의 왜곡발언 등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선 과정에 국민의힘이 미래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도 아닌 뜬금없는 ‘광주 대형복합쇼핑몰 유치’를 지역의 대선 이슈로 꺼내놓고 전략적인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과 함께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21일 오전 시청에서 출입기자간담회

를 갖고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 등이 주장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광주 GDP(국내총생산) 꼰등 발언 등에 대해 “호남표심을 의식한 정치 행위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어느 도시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광주 이미지를 훼손하고, 광주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폄하 발언이자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선도해온 정의로운 도시지만, 오히려 이런 이유로 과거 보수 정권에서 소외받아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돼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3번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광주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민선 7기 들어 안국

지능 대표도시, 친환경자동차 산업도시 등 정치가 강한 도시에서 경제도 강한 도시로 탈바꿈했다”라며 윤 후보의 GDP 꼰등발언 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실제 광주의 2017년 대비 2020년 기준 GRDP(지역내총생산), 1인당 GRDP, 1인당 지역 총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는 2020년 1인당 개인소득도 2128만 6000원으로 전국 평균(2120만 5000원)보다 높고, 17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2406만 1000원), 대전(2135만 1000원), 울산(2355만 9000원)에 이어 4번째다.

윤 후보의 ‘광주 GDP 꼰등’ 발언은 아마도 GRDP(지역내 총생산·일정한 지역 안에서 특정 연도에 새롭게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계)를 얘기한 듯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시장은 GRDP 통계를 예로 들었다.

이 시장은 “지자체의 GRDP는 인구나 직결되기 때문에 총량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1인당 또는 증가율로 비교하는 것이 옳다. 물론 총량으로 비교하더라도 광주가 지자체 중 꼰등이라는 (윤 후보의)발언은 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윤 후보의 ‘복합쇼핑몰’ 공약과 이른바 ‘대구 발언’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의 생존권 보호와 도시경쟁력 강화, 원정쇼핑에 따른 불만 등을 고려해 광주대전환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주형 상생 복합쇼핑몰 유치 관련 상생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제한 뒤 “광주에는 현재 백화점 3곳 포함해 대규모 복합쇼핑몰 22곳 등이 운영중에 있다. 광주 시민이 원하는 것은 이 같은 복합쇼핑몰이 아니라 코스트코 등 창고형 대형 매장인데, (국민의힘은) 마치 복합쇼핑몰이 한 곳도 없는 도시처럼 왜곡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윤 후보가 최근 대구 유세에서 민주당이 광주 복합쇼핑몰을 반대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형쇼핑몰에 있는 좋은 물건들, 명품들, 이런 것에 도시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투쟁의지가 약화된다고 생각한 모양”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 질문에 대해서, “광주정신과 광주 시민을 너무나도 모르는 발언이다. 언급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또 이준석 대표의 복합쇼핑몰 토론 제안과 관련해서도 “제1야당 대표가 지자체가 할 일을 들고 와서 한기하게 광주에서 토론한다고 한다니,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면서도 “오시겠다는 건 표가 된다고 생각해서 아니겠느냐.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광주 시민은 보통 시민이 아니다”고 답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야, 16.9조 추경 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332만명
1인당 300만원 방역지원금

여야가 21일 본회의에서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와 한병도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박 의장이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독자적으로 마련한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 었으나 여야가 막판에 합의치리 쪽으로 기각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4조원의 정부안이 당정 협의과정에서 예비비 일부가 삭감돼 13조 6000억 원이 된 것보다 3조 3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16조9000억 원이 됐다.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는 데 1조 3000억 원,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과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데 2조 원을 더 투입한다.

이 중 1조원은 현행 80% 수준인 손실보상 보증률은 90%로 상향하고 식당과 카페 등 감염 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업종의 60만 사업장에도 지원하는 예산이다.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서 332만 명으로 확대됐다.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간이 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에도 3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총 3000억 원이 들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

여야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도 7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00억 원을, 또 7만6000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000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각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도 총 1000억 원을 추가로 배정, 문화예술인 4만 명에 한시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연합뉴스

여야 대선후보 TV 토론 ... 경제 정책 날선 공방

21일 여야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TV 토론회에서 날선 설전을 펼치면서 향후 ‘토론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일을 16일 앞둔 이날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 시대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120분에 걸쳐 격돌했다. 이날 토론은 이들 후보가 모인 3번째 TV토론이면서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TV토론이다.

이 후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민생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물 경제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했다. 이에 맞서 윤 후보는 경제 비전으로 내세운 ‘역동적 혁신 성장과 생

산적 맞춤 복지’라는 양대 축을 유권자들에 알렸다.

전날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안 후보는 양당 후보의 포퓰리즘 공약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자신의 공약을 내세웠다. 심 후보는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혁,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플랫폼 경제의 민주화 등 진보 진영의 의제로서 차별화를 강조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는 오는 25일(정치), 3월 2일(사회) 2차례 더 열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연 10%’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폭주 ▶ 8면
- 굿모닝 예향 -코로나 시대 예술가의 삶 ▶ 18-19면
- KIA, 오늘 스프링클러 첫 연승경기 ▶ 22면

아이오페 SUPER CLUB

아이오페 베스트 상품 구매하면 슈퍼클럽 자동 가입!

아이오페 슈퍼클럽 가입 방법

아이오페/한울 베스트 상품을
아리따움 매장, 마트 화장품 매장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구매시
자동 가입됩니다.

대상 제품

IOPE 레티놀 엑스퍼트 0.1%, 0.2%, 0.3% (MINI 제외)
비이오 컨디셔닝 에센스 쓰리 펠타이드
슈퍼비타탈 에센셜 크림 리치

한울 극진 에센스 기획세트
극진 크림 기획세트

※ 슈퍼클럽 회원 유지 기간은 구매일 포함 3개월까지 유효합니다.
※ 기간 내 재구매 시, 구매 당일 포함 3개월까지 회원 유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아이오페 슈퍼클럽 혜택

01

**아이오페 전 품목 (MINI 제외)
한울 일부 품목**
[극진, 백화고, 세살썩 라인]
바이탈뷰티 일부 품목
[슈퍼클라겐 프리미엄, 홍삼 진액수]
10% 추가 할인

02

**레티놀 구매 시 (MINI 제외)
5천원 슈퍼쿠폰 증정**
[레티놀 및 쿠폰 제외 상품 적용 불가]

※ 슈퍼클럽 10% 추가 할인은 타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됩니다.
※ 슈퍼클럽 10% 추가 할인은 주문/결제 단계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 슈퍼쿠폰은 주문/결제단계에서 쿠폰 적용이 가능합니다.
※ 슈퍼쿠폰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레티놀 엑스퍼트 0.1% MINI는 아이오페 슈퍼클럽 혜택에서 제외되며, 1인당 하루 최대 5개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 환불 시 슈퍼클럽 등급은 종료되며 지급된 혜택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